

NEWS LETTER

2021년 12월 13일 Vol. 426

로봇수술센터 개소식 및 기자간담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12월 9일 첨단 로봇수술 시스템인 '다빈치 xi'를 도입해 로봇수술센터 개소식 및 기자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로봇수술은 기존의 개복술이 아닌, 환자의 피부에 작은 구멍 내어 로봇팔을 삽입해 수술하는 최소 침습 수술방법이다. 주로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이비인후과에서 다양한 외과 분야의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로봇수술센터 전담간호사, 코디네이터 전문 상담사의 협력을 통해 환자들 의 입원 전부터 수술계획, 수술과정, 회복 등 퇴원과정까지 최선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돕게된다.

권범선 병원장은 “이번 로봇수술센터 개소를 기점으로 향후 서울까지 가지 않고도 전문적인 수술이 가능해, 경기북부 지역민들의 치료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현수 로봇수술센터장은 “로봇수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양성 질환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경과 김남희 교수, 대한신경과학회 우수연제 발표상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김남희 교수가 최근 제40차 대한신경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발표상'을 수상했다.

김남희 교수는 ‘저대조도 시각유발전위검사의 시신경염 진단 유용성’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해 독창성과 임상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 연구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도약연구비 수혜를 받았던 것으로 연구 결과 10%의 저대조도 시각 자극을 주었을 때 기존 시각자극에 비해 시신 경염을 더욱 민감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검사기기를 활용해 과거에 보고된 바 없었던 새롭고 더 민감한 검사 방법을 제안했다”며“이는 추후 다발성 경화증이나 시신경척수염증후군의 조기 진단을 향상시켜 치료 및 예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3회 포교대상 원력상 수상

동국대학교의료원 기획처 대외협력홍보팀 김명숙 팀장이 지난 12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된 대한불교조계종 제33회 포교대상 시상식에서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범해스님, 교육원장 진우스님, 종단 주요소임자 스님을 비롯한 교계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참여 인원을 제한 하고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불자들을 위해 포교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대외협력홍보팀 김명숙 팀장은 “일상이 부처님 법이고 포교라 생각하고 제게 맡겨진 소임에 감사하며 묵묵히 걸어왔을 뿐인데 이런 큰 상을 주셔서 부끄러운 마음이다”며“ 이 원력상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에서 한 사람의 의료포교사로서 또 약왕보살의 화현으로 그 서원을 더욱 견고히 하라는 부처님의 부탁이라 생각하고 여일정진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기부작품소개

불교 크리에이터 장정윤 일러스트 작가, 불교애니 작품 소개



작품명(2편) : 불락기(2017)

작품소개

인형 뽑기 기계가 붐이 일기 시작했던 때, 사찰에서도 유행에 걸맞게 인형뽑기 기계가 한 대 생긴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기자기하게 작은 절과 같은 모습을 하였고 불교용품이나 부처님 인형이 들어있어 불심으로 가득한 기계. ‘불교를 즐길 수 있는 기계’라는 뜻으로 불락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손에 잡힐 듯 하지만 쉽게 잡히지 않는, 그러나 정성을 다하면 기분 좋게 얻어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인형이 아닌 불심입니다.